추모 발원문

행복한 세상을 꿈꾸던 소중한 삶을 함께 기리어 추모합니다.
인성의 존엄으로서 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바랐던 절실하
고 당연한 희망을 모두가 실천해 나아가길 발원합니다.

가난하다는 것과 신체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인성의 존엄과
평등한 삶까지 상처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등한 인성으
로 살아가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삶의 극
단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사회의, 우리 모두의 아
픔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등한 삶을 등한시하여 마음의 차별까지 만드는 부조리한 현
실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며 마음속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워지길 발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희생, 그리고 소중한 희망이 올곧게
모두에게 전해지고, 마음까지 풍요로운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